

성장 신화 속에 춤추는 욕망과 환상

-박범신의 「죽음보다 깊은 잠」 연구

김현주

국문초록

본고는 박범신의 「죽음보다 깊은 잠」을 통해 1970년대 대중소설의 면모를 점검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대중소설은 도시성, 성, 그리고 일상성의 문제를 중심과제로 타자, 특히 여성의 생존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소설은 도시성, 성, 그리고 일상성을 통해, 자율적인 주체 구성과정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왜곡된 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1970년대 타자, 특히 여성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에서의 주인공들의 타자로서의 삶은 결코 한 개인의 위선이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사회에 의해서 왜곡되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다. 이러한 타자의 삶의 왜곡은 산업사회의 모순과 연결되면서,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에 「죽음보다 깊은 잠」의 주인공들은 그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타자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주하여 상류 계층에 편입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위선이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도 불사한다. 즉 그들은 상류 계층의 삶에 자신의 삶-주변부인의 삶을 잘못 투사함으로써, 환상과 실재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곧 환상과 실재의 경계마저 사라지고, 환상을 실재로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착각이 수직 욕

망에의 질주를 더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실재가 폭로되면서, 주인공들은 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산업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나 여성의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주인공의 좌절이 개인의 위선과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이 소설에서 주목하는 것은 건강한 삶과 대비되는 주인공들의 욕망과 환상이 보여주는 비도덕성과 이기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주인공의 이기심을 질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욕망과 환상으로 질주하기 위해 주인공들이 얼마큼 도시적 환상에 빠지는지, 성적 자유를 만끽하는지, 수직 상승에의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참하게 좌절하는지에 주목할 뿐이다. 요컨대 이 소설은 주인공의 도덕성이나 이기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듯하다가 다시 도시적 경험과 도시적 환상에 폭 빠지게 한다. 이러한 애매한 자세는 사회 전체를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나 사회의 미래를 반영할 유토피어를 선취하거나 잠재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타자, 특히 여성의 삶에 문제제기 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적으로는 당대의 사실주의적 묘사, 그리고 도덕적 경험 및 일탈 등 다양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사회의 소비 상품의 유형적 특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 성장 신화와 욕망

대중소설은 대중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대중성을 확보한 산업화 시대의 소설이다. 즉 대중소설은 대중사회를 토대로 한 대중문화의 한 유형이다. 작가나 독서대중은 능동적인 주체가 될 때, 대중소설은 그 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중소설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기제로, 독서대중을 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모순을 망각하고 당연시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한, 대중소설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고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중소설이 한국문학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주요한 요인은 그것이 본격소설과의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 절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대중성을 다수에게 향유되는 것, 저속한 것, 다수를 위해 상품화한 것, 다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중소설은 유형화된 형식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에 불과하며, 독자의 기대와 예상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에게 위안과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위안과 만족감일 뿐이라고 폄하했기 때문이다. 대중소설이 주는 위안은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소설도 문화의 한 유형이라고 볼 때, 소설에 대한 인식도 시대적 정황이나 독자층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대중소설에 대한 접근도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문학사에서 대중매체와 결합된 형태로서 대중소설의 개념이 자리잡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이다.¹⁾ 소설이 조선 이후라고 볼 때, 약 600년이 지나서야, 대중소설이라는 개념이 인정받은 셈이다. 21세기를 전후하여 대중 문학이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제는 대중 문학 내지 대중소설을 더 이상 부정만 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의 하나로, 아니 지배적인 문화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대중소설이 우리의 현실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화적 현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더 이상 대중소설을 무시하거나 백안시하는 몰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문적 연구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설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확장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독자를 떠나 고고하게 살아가는 작가란 무의미하다. 김현의 말대로 현대의 직업적인 소설가는 '소박한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는 이제는 문학 작품이 고고하게 연구자들간에서만 논의되는데서 나아가, 대중에게 회자되어야 한다는 통찰이다. 그는 문학 작품이 소비 상품이라는 점은 부인했지만, 그의 글에서 문학 작품도 대중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1) 권영민 편 『한국 문학 50년』을 보면, 1975년부터 1985년까지의 소설집 발행고가 50년대 중반까지의 약 6배, 60년대 중반까지의 약 4배, 70년대 중반까지의 약 3배를 기록했다고 한다.

2) 김현, 70년대 문학의 상업주의, 『김현 전집』 14. 문학과 지성사 1994.

상품 전략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고충 아닌 고충을 엿볼 수 있다.

1970년대 대중소설이 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상품 전략적 측면 때문이다. 또한 대중의 감수성과 부합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³⁾

196-70년대 한국 사회는 서구 자본주의에 종속되던 시기였다. 특히 196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고도 성장률을 보여주던 시기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1964년 월남전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개개인들은 소득을 올리고 부를 획득하여, 상층 계층으로 수직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유이나 개성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도 성장 일변도의 근대화는 정상적인 근대적 의식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 당하게 된다. 이 근대화의 주도 세력에서 밀려난 주변부 인물들의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서도 주변부인들은 성장신화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장 신화 내지 수직 상승의 욕망은 그들에게는 실제로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근대의 근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주체성은 왜곡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다.⁴⁾

아도르노에 의하면, 신화란 '외부의 힘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충동도 시 또는 악마적 근원을 가진 살아 있는 힘'이며, 계몽이란 신화와 '반대로 연관관계나 의미나 생명을 완전히 「주관성」 속에 밀어 넣는데, 사실 주관성이란 이러한 환수 과정 속에서 비로소 구성된 것이'다.⁵⁾ 이런 관

3) 바흐진에 의하면 저급 장르인 소설은 동시대성을 재현하는 장르이다. 여기서 동시대적 삶 자체, 나 자신과 나의 동시대인들, 나의 시대 등, 이 모든 개념들은 원래 윤패하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양가적 웃음의 대상이 된다.(바흐진,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39쪽, 창작과 비평사 1988)

4) 헤겔에 의하면 근대의 원리로서 주체성을 발견하고, 그 표현에는 네 가지 함의를 수반한다고 했다. 즉 개인주의, 비판의 권리, 행위의 자율, 관념주의적 철학이 그것이다.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37쪽, 문예출판사, 1995)

5) M. 호르크하이머/ TH.W. 아도르노 지음, 김유동, 주경식, 이상훈 옮김, 『계몽의 변증법』 133쪽, 문예출판사, 1995.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성장은 미신적 공포로부터, 전근대적인 비합리적인 요소로부터 탈주하는 계몽적 성격을 띤다. 그런데 1970년대 한국사회의 성장 신화는 강렬한 주체 내부의 충동, 욕망을 다시 환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질주함으로써 더 비합리적인 상태로 주체를 몰아넣고 있다. 그러므로 주체는 실재와 이상의 경계를 혼동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혼동한다. 그 혼동 가운데 다시 주체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주관적인 욕망으로 인해, 타인의 정체성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투사하게 된다. 따라서 주체는 타인의 정체성에 기대어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행위의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 신화를 주요한 모티브로 삼는 당대의 대중소설은 '의미 있는 일상성' 과 지배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일상성이 갈등하게 된다. 이 갈등은 당연히 대중들의 소외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성장의 신화에서 밀려난 주변부인들은 소박하지만,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적 원리인 이윤추구가 실상은 부의 확대에 치중할 때, 정당한 자유경쟁이나 능력 본위의 사회가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폭로된다. 더구나 자본가가 비윤리적인 성향을 가질 때, 그 왜곡은 심화되는 양상을 폭로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부로 밀려 나갔던 타자, 특히 여성들의 삶이 '의미 있는 일상성' 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반면에 중심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변부인들은 자신도 중심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즉 중심으로의 수직 상승에 대한 환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인 도시적 환상과 더불어 현재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 신화, 도시적 환상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들의 삶을 그대로 노정하는 박범신의 『죽음보다 깊은 잠』⁶⁾(1979)을 이해하는 것은 1970년대 대중소설의 한 면모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6) 박범신, 『죽음보다 깊은 잠』, 문학예술사, 1979.

2. 도시적 환상

도시는 공동체적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산업화에 의해서 무력해진 도시인의 삶을 어루만져 주는 곳이며,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이상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비쳐진다. 그런 이상과 욕망이 실현되길 바라며 도시에서 부유하는 인물들은 카페나 술집에 드나들면서, 도시적 풍속을 만끽하고, 비행기나 택시를 타면서 속도감을 즐긴다. 실제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도시적 경험만을 즐기려고 할 때, 도시적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적 환상이란 도시의 추한 실상은 도외시하고, 도시가 보여주는 네온사인의 불빛과도 같은 화려함만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결합된다. 다시 말해 도시적 환상이란 근대화에서 밀려난 주변부인의 고달픈 삶의 모습은 일부러 외면하고, 도시라는 곳은 누구나 기회만 잡는다면 계층의 수직이동도 가능한 곳, 삶을 도박처럼 던져도 유능한 도박사처럼 돈을 걸머질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여자와 멋진 남자의 만남이 늘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이미지, 그 밖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화려함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죽음보다 깊은 잠」이나 동시대의 다른 대중소설인 「별들의 고향」⁷⁾이나 「겨울여자」⁸⁾,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⁹⁾도 그런 도시 풍속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들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현실적 삶에서 좌절을 맛보고 그곳으로부터 탈주하기 위해 도시적 환상에 빠져든다.

이들 소설에서 보여주는 도시적 환상은 자본의 풍요 속에 자연스럽게 성적 개방과 연결된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에 있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70년대에 와서야

7) 최인호, 「별들의 고향」(1972년 조선일보에 연재 후, 단행본으로 간행)상하. 예문관 1973.

8) 조해일, 「겨울여자」(1975년 중앙일보 연재 후, 단행본 출간), 문학과 지성사, 1976.

9)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세대, 1973.(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활자로 묘사되고 사회적으로도 성행위가 비도덕적인 것이거나 은밀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만연된다. 그 결과 성적 욕망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렇듯 70년대 소설의 성담론은 공적 담론을 형성하고, 사고의 전환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성적 자유는 본능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성을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금욕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 시대의 규율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 나아가 성뿐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데 일조 하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 대중소설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면모가 있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대중소설에서 보여지는 성적 자유는 언어의 감각성, 가벼운 일상적인 행위로서의 성행위와 성적 욕망, 일상적인 성 담론, 노골적인 성적 본능의 표현으로 형상화된다. 이것은 분명히 통속적인 면모를 띤다. 이런 통속성은 시대적 열망, 특히 70년대에서는 정치적 자유에의 갈망과 연결된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박탈은 개개인을 억압하고, 그러한 억압은 사회와 개인간,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단절시킨다. 『벌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에서는 사회와의 관계나 인간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개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소외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성적 자유에 빠져든다.¹⁰⁾

그러나 이 소설에서처럼 성적 자유는 도시적 환상과 결합되면서 왜곡된다.

(가) 「조금이라도 절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싫어요. 전요.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10) 줄고,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1970년대 소설 연구』, 소명출판사, 2000.

자유(강조-인용자)운 걸요.»(박범신, 위의 책, 12쪽-이하 숫자만 표시)

(나) 「사랑하지 않는 자유」(강조-인용자) 얼마나 좋니? 사랑하면 서로 구속하려 들거든」.....(생략-인용자)그때 담배를 태워무는 그를 보고, '참혹한 동공'을 느꼈다.

아아. 난 그에게 저 담뱃불처럼도 가까워질 수 없다. 다희는 절망하였다. 스스로가 그의 <꽃> 그의 <바다>이고 싶어 바친 순결인데도 불구하고 다희는 절망하였다.(45)

위의 (가) 인용문은 「죽음보다 깊은 잠」의 주인공 다희가 대학 교수가 된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과 성 관계를 맺은 후에 한 말이다. 「별들의 고향」에서 처녀성 상실로 인해, 고통받던 주인공 경아의 삶과 비교해보면, 다희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나) 인용문은 다희가 집을 뛰쳐나와 영훈과 관계를 가진 후, 「사랑하지 않는 자유」에 대해서 역설한다. 그런 발언이 가능한 것은 (가) 인용문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는 고등학교 은사와의 성관계 이후, 그에게서 '참혹한 동공'을 발견한다. 그 후 그녀의 성의식은 전환된다. 다시 말해 성관계가 타인과의 소통 방법이라는 하나, 그것으로 타인의 벽을 허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영훈에게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녀의 욕망은 영훈과 같은 편안함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의 성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훈이나, 그녀 자신에게 각인 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위의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희는 사랑과 성 관계의 등식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유희와 성 관계를 등식화시켜 성적 개방을 부르짚는 것도 아니다. 다희가 생각하는 성 관계란 타인과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거기에 사회적 의미, 즉 도덕이나 규율,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적 의미가 개입되지 않는다.

친구들도, 정교수도, 현우도, 영혼이만큼 다회를 편안하게 하지는 못했다. 영혼이와 만나고 있을 때만이 **다회에겐 가장 편안한 시간**(생략-인용자)이었다. 마치 폭신한 침대에서 잠이라도 자고 있는 기분이었다. (25)

영혼인 뭐든지 사줄 수 있고 다회는 뭐든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질 수 있었다. 심지어는 북극의 오로라와 바람까지도.....(생략-인용자) 다회는 옷을 다 벗고 잠을 잤다.(생략-인용자)양말을 벗기려 들면 다회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다. 반듯하게 눕는 법이 없이 엎어지거나 무릎을 꺾어안고 다회는 썩썩근 어린애같이 숨을 토해 내면서 잠들곤 하였다. 어디를 만져도 빠는 잡히지 않았다. 살진 것도 아닌데 안으면 쏘옥 담겨드는 작은 체구가 토실토실했다.(생략-인용자) 싱싱한 탄력이 마디마디 닿았다. 살갗은 차고 투명한 게 유리 그릇이었다. (65)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영혼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휴식과 안정을 안겨다 주는 한에서만 지속될 뿐이다. 여기서의 관능적 묘사가 지나치리만큼 노골적이지만 다회의 성의식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즉 주인공이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녀가 정교수나 영혼, 그리고 경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시적 환상과 연결이 된다. 자신의 환상과 욕망에 관계되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개방적인 성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녀의 성의식은 폐쇄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비록 자신이 순수하지는 않다고 자각하지만, 순수성을 지향해야 할 도덕적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순수성에의 지향은 도시적 환상의 또다른 모습이다. 거대한 빌딩 숲으로 연상되는 도시화의 이미지는 자연의 순수함, 인간의 순수함과 대비된다. 그러므로 도시적 환상은 그런 거대한 빌딩 숲에서도 순수함을 간직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한다. 희귀하지만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은 순수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순수함은 가상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미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과 순수한 이미지를 동일시하려고 할 때, 실재와 가상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된다.

그와 **수줍게**(강조-인용자) 맥주를 마시며, '자신의 천연덕스런 몸짓과 말씨에 스스로 혀를 찼다.(생략-인용자) 그러나 열망을 위하여 분가루를 뒤집어쓰는 건 순수하지 못하지. 웃기고 았았네. 순수라니..... (111)

위 인용문은 다희가 이경민과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수줍은 처녀처럼 행동하고 그런 행동에 스스로 놀라워하면서 자신의 이중적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다희의 노력 때문인지 열망 때문인지, 경민은 다희와 첫 번째 성관계를 맺으면서, 다희의 하혈을 보고 처녀라고 확신하게 된다. 경민은 그런 순수성을 지닌 여자를 위해서, 비싼 에메랄드 목걸이를 준비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선물한다. 한편 다희는 경민이 다정한 모습에서 '음울하고 섬뜩한 눈빛' (111)으로 '재빠른 변신' (196)을 거듭해서, 불안해 하지만, 에메랄드를 보는 순간 그 불안감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다희의 순수/비순수한 행위, 경민의 다정한/섬뜩한 모습, 이런 이중적 행동은 외줄을 타는 어설플 광대처럼 위험한 몸짓이다. 이러한 위험한 몸짓은 어설플 광대가 잠시나마 모기로서 타인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그 외줄에서 곤두박질 치게 마련이다. 자신들의 본모습을 감추고, 상대에게 다른 이미지의 **환상**을 심어주고, 스스로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환상**의 틈이 생기게 된다. 이들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가장 자율적이고 의지적인 주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런 착각, 즉 허위의식은 타자인 그 주체가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한 것인데, 주체는 그런 허위의식을 재생산해 내는 기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희는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였고, 자율적이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시시하게 웃이나 한두 벌 선물 받고 경망스럽게 굴다가는 뻘히 들여다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코앞에서 그 견고한 쇠문을 칠컷 닫고 주르르 저 혼자 상승해 버릴

지 알 수 없다.(생략-인용자)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강조-인용자)는 위장된 진실(강조-인용자)을 보일 기회를 찾고 있었다.** (140)

‘자신의 의지’ 만이 수직 상승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다희가 말하는 의지는 행위의 자율성이 아니라, 주관적 욕망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도시적 환상에 빠진 주인공들은 도시가 가져다준 편안함과 속도를 맘껏 즐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본질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감추려 한다.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이경민은 머리가 복잡해지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버릇이 있다. 그에게 속력이란, ‘모든 우울도 일시에 걷어갠다(157)게 하는 것이다. 그런 질주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며 도시적 환상에 젖어 들어간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한, 그 환상과 욕망은 지속될 것이다.

다희 역시 영혼과 만날 때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지만, 물질적 풍요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민을 만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화려한 에메랄드 목걸이를 걸고, 드레스를 입고,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 다희의 욕망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혼의 색시처럼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를 배회하기도 한다. 그러한 환상을 깨고 싶지 않다는 열망 때문에, 경민의 이중적 모습에 의구심을 갖지만, 그것을 가볍게 떨쳐버린다. 그의 집안사, 특히 그가 가정부의 아들이라는 말을 토해 놓는 순간, 다희는 ‘경민에게 느껴지던 보이지 않는 벽이 일시에 허물어진’ (186)다. 다희가 경민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은 경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잡은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내적 욕망 때문이다. 그녀의 욕망은 결국 자신의 본능마저도 변화시켜버린 것이다.

첫눈을 보고, 경민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생략-인용자) 싫어도 난 지금 설계사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안돼. 경민이란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려**

한 세계로 비상하려면. (강조-인용자) 하지만나는 그를 사랑해. (251)

위 인용문에서 다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상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와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욕망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짙어진다고 볼 때, 이런 다희의 행동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각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될 때 실재와 환상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타인의 삶에 자신의 삶을 동일시한다. 즉 잘못 투사된 환상을 실재라고 믿게 된다. 이런 과정은 잘못된 내면화로 인해 생긴다.

이런 순수성에 대한 위장, 그리고 그것의 내면화를 통해 『죽음보다 깊은 잠』은 1970년대 다른 대중소설인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 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이 소설은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와는 달리, 성녀와 창녀라는 이분법의 틀에서 벗어난 듯하다.¹¹⁾ 그러나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에서 이런 이분법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길항 작용을 보여주기에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주인공의 삶이 비참하고, 추한 듯하지만, 이런 추한 모습과 대비된 순수한 성녀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삶이 이 시대의 희생물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별들의 고향』에서 주인공 경아는 창녀이지만 타이프스트나 여대생이 되고 싶어한다. 반면에 『겨울여자』의 이화는 가난한 사람 편에서 서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남성들이 강요하는 순결성의 논리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좌절된다. 이렇게 그들의 소망이 현실에 의해서 여지없이 차단 당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의 물리적인 힘의 부당함이 확연하게 표면으로 돌출 된다.

그러나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순수성의 이미지는 사회적 의미를 띠지 않을 뿐더러 비주체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녀가 위장한 순수성은 타인에

11) 줄고, 위의 책.

의지해서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다희를 순수하다고 믿는 경민 역시 서자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순수한 이미지의 여성을 원했을 뿐이다. 적자의 정통성은 순수한 혈통일 때,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경민의 환상이 서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즉 그의 환상은 순결성을 유부남에게 빼앗긴 어머니와는 다른 순수한 처녀성을 지닌 여자를 욕망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3. 수직 상승으로의 질주

대중 시대의 소설은 그 사회의 계급 구조와 권력 구조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대중소설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전도된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해냄으로써 그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려고 기도하는 반면에, 저항 이데올로기는 그러한 기도를 폭로하고 그 사회구조를 전복하려고 기획한다. 이러한 길항 관계로 인해, 주체는 개인의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표상, 삶의 방식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일상생활에서 호명된 주체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런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자신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지 못한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일상성이란 근대성과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며, 시간에 있어 반복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반복의 지배가 바로 생활 방식이다. 그러나 일상성의 역사란 파편적이고 단순한 일화들을 나열한 ‘무의미한 일상성’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역사, 즉 ‘의미 있는 일상성’의 역사이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주변부 인물들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나 불평등을 첨예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상성’을 지닌 삶을 보여준다.¹²⁾ 그들이 숨쉬는 공간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의미 있는 일상성’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주변부 인

물들은 자신들의 삶이 결코 '일상성'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것'이라고 느낀다는 사실이다. 주변부 인물들이 '일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편승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중심에 서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부 인물들은 '일상성'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때, 그들은 '의미 있는 일상성'에서 벗어나 왜곡된 삶을 살게 된다. 왜곡된 삶을 지향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자신들이 욕망을 이룰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왜곡된 삶으로 질주한다.

따라서 주변부 인물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은 단순한 기표로만 떠돌게 마련이다. 그들이 단순한 기표로만 상징화 될 수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을 지향해야 할 긍정태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비일상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지양해야 할 부정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한, 그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탈중심적 주체, 타자성에 머물게 된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비일상적인 것'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 타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행위는 소외된 주체, 타자의 행위 양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비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주체가 된다.

1970년대 대중소설은 주체의 상대적 자율성을 억압하는 시대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는 '잘살아 보세'라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부의 집적에 대한 강한 욕망, 그리고 그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즉 지배 이데올로기의 성장 신화에 발맞추어나갈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970년대에 일상성을 욕망 한다는 것은 지배 이데

12)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올로기에 편입하여, 잘 살아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론하는 일상성이란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이기 때문이다. 타자인 주인공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중심부로 편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이 상류 계급이 누리고 있는 일상성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들의 삶은 왜곡된다. 상류 계층의 삶에 자신의 삶을 잘못 투시한 결과, 그들의 자리는 자신이 부정해야 할 자리가 된다.

그들이 부정하는 삶이 실은 상류 계층의 비윤리적인 대인관계를, 정당한 자본주의 윤리-자유경쟁,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는 상류 계층의 비도덕적인 상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들의 삶을 통해 이윤 추구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상류 계층 내지 자본주의의 중심 세력의 비윤리성과 비도덕성을 폭로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비일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죽음보다 깊은 잠』에도 그런 '일상성'에 대한 환상을 품은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성장 신화 속에서 계층의 수직 상승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수직 상승에의 욕망 때문에 질주하는 인물들이다. 우선 주인공 이경민은 서자이기에 늘 적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상류 계층에 속한 듯하나, 결코 그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벽을 느낀다. 다희 역시 상류 계층의 삶을 살고자 하나, 상층 계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속 상승하기 이전에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직 상승에의 욕망은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해 강화된다.

경민은 수직 상승에의 욕망을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정당화, 합리화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명목상의 의미이고, 실제로는 서자인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아버지나 이복형이 속한 계층의 부와 권위를 동일하게 획득하고 싶다는 욕망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속한 계층의 부에 자신을 잘못 투시한 결과, 자신의 삶-숙녀복 회사의 사장이라는 삶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서자이며,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해 외롭게 죽어간 후,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빼앗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

경민은 단순히 소파에 얼굴을 파묻은 게 아니었던 것이다. 두 팔로 둥그런 물체를 안고 그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었다.(생략-인용자) 그가 안고 있는 물체의 정체를 알았다. 그것은 시계였다.(생략-인용자) 「오늘은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야.」(생략-인용자) 「우리 어머니 원래 가정부였어.」....(생략-인용자) 「어머니는 서른 여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 대접이나 각혈을 하고 마포의 낡은 기와집 안방에서 혼자 죽었지. 아버진 내 전화를 받고도 여덟 시간이나 넘긴 다음날 일곱 시에야 나타나더라. 열 여섯 살 짜리 내가 밤새 어머니의 시체 곁에서 생각한 것이 무언지 아니?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그 한 가지 뿐이었어(생략-인용자).....」(181-185)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경민은 자신이 서자라는 사실이 일상성에서 소외된 근본 원인이며,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삶이 '비일상적인 것' 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가 '비일상적인 것' 이라고 느끼는 삶은 실은 '부'를 가진 계층의 비윤리성을 폭로하는 '의미 있는 일상성' 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서자라는 콤플렉스에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이복형과 동일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유품인 '시계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복수라는 이름으로 수직상승에의 욕망을 스스로에게 각인 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그는 '일상성'에서 늘 소외된 주체이며, 타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범했던 것처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도산시킨다. 즉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주체가 되고 만다.

다희 역시 가난한 집안 형편과는 무관하게 자신만이라도 그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기적 욕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극까지 벌여 4년제 대

학에 입학한다. 그녀는 대학조차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출신인 것이다. 이런 자신의 삶이 결코 '일상성'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것'이라고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일상적인 삶'이란,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편승하여, 성공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은 자신과 같은 미모와 노력이라면, 가능도 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기에 가출해서, 병역기피자이지만 따뜻한 남자 영혼과 동거를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은사였던 정선생과 성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자신의 자율적 행위이며, 성은 간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것이며,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의 신장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된다.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왜곡된 삶을 지향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그 욕망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상에 젖는다.

그래, 영혼이는 엘리베이터는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는 비로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아라. 그의 닫혔던 육체는 열리고 그는 격렬하게 뛰어나오고 있다. 언제나 내일은 없었거든(강조-인용자). 강의를 끝나면 빈 공간만 남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 그 퇴락한 목조 이층의 나무 계단만이 내겐 내일이었어. (48)

위 인용문은 그녀가 친구 혜승과 경옥이 재벌급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난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독백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미래가 없는 삶, 부정해야 할 '비일상적인 삶'으로 인식한다. 그녀가 인식하는 그녀의 현실과 미래는 불만족스런 것이며,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 역시 '일상성'에서 늘 소외된 주체로, 타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한다. 타자로서의 삶, 불안한 미래가 그녀를 환상에 쉽게 빠뜨린다. 그런 불안의식과 소외감에런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경민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녀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그녀는 그를 '비일상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간주

한다. 더욱이 그가 그녀에게 모델 제의를 하자, 그녀는 자신이 일약 ‘왕비도 될 수 있다는’ (109) 환상을 쉽게 믿어버린다.

사랑에도 돈이 필요한 거구나(생략-인용자). 영혼은 혼자 웃었다.(114)

밥이 끓었다. 영혼은 찌개를 앉히고 냄비 뚜껑에 불고기까지 만들었다. 그 예를 깜짝 놀라게 해 줘야지. 그 앤 단순하니까 내 이 작은 정성만으로도 팔짝팔짝 뛰어 오를 거야.....(생략-인용자) 네 번쯤 정류장에 나갔을 때 영혼은 다희를 보았다.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다희가 아니라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 조용히 머물렀다 떠나는 흰 빛깔의 벤츠 뒤에 서 있는 다희였다. (119)

하지만 다희는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지 않았다. 환호성도 내지르지 않았다. 다만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와드득 일그러지는 그녀의 표정(생략-인용자)을 영혼은 보았다. (123)

위 인용문은 다희의 심리적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영혼의 호의를 다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장면이다. 다희를 사랑하는 영혼은 정성을 다해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놓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그녀를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런데 늦게 나타난 그녀는 기대 밖의 행동을 한 것이다. 한편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 경민을 만나 화려한 미래를 상상한다. 그런데 영혼이 선물이라고 내놓은 초라한 밥상을 보면서, 자신이 부정하고 싶은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의 흔적을 확인한 것이다. 그녀는 영혼의 정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자신의 그런 비참한 삶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일을 위해’, 영혼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다. 노력에 의해서, 의지에 따라서 욕망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후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우선 요조숙녀로 재생하기 위해, 그녀는 그녀의 순수성이 잠시나마 존재했던 가족의 품으로 귀환한다. 그리고 경민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도 풍요로움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그녀에게는 경민이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탄 것은 결국 이런 것일 게다. 다희는 믿고 싶었다. 층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두드리며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생략-인용자). 어차피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십층이나 십오층쯤에서 주저앉을 것을.(109)

그래서 대학 축제에 입고 갈 드레스를 퍽없이 비싼 돈을 들여 산다. 물론 그런 비싼 옷은 그녀의 등록금만큼이나 가난한 다희네 집으로서는 무리였으나, 동생의 납부금으로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를 갖춘 것이다. 이런 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가족의 삶에 대해서 애써 모른 척하려고 할 정도로 이기적이다. 욕망으로 질주하는 다희는 마치 경마용 말이 옆을 보지 못하게 말 안경을 단 것 같이, 주위의 장애물을 무시한다.

이렇듯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거나, 도외시한 채 질주한다. 목표로 명목적으로 질주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배려해야 할 다른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희와 마찬가지로 경민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경민의 아버지는 자신은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경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민에게 친구 김상길을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경민은 그런 충고마저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런 아버지의 충고가 도리어 자신의 꿈을 꺾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버지를 제거해야할 적으로, 김상길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희생하는 동지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민은 모든 일에서 그와 상의하고 그의 조언과 전략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가 경민이의 운전수로 남아있는 것은 경민이의 욕망을 처음부터

깨뚫어 본 그의 조언에 경민이가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신분을 숨긴 상태(생략-인용자)에서 그가 아버지와의 전쟁에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돌격조의 선봉 역할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싸움에 그는 거의 완전한 포석을 마련했다(생략-인용자). (200-201)

인용문에서처럼 경민은 친구 김상길이 운전사로 신분을 감춘 채, ‘숨겨 놓은 칼날’ (200) 역할을 하면서, 거의 완전한 전략을 짠 동지라는 점에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김상길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회사 주식을 경민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사들인다. 경민이 대양백화점을 송두리째 나꿔 채려는 친구의 계략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김상길의 욕망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더 빨리 실현시키고자하는 욕망에, 갖가지 편법까지 동원한다.

대양백화점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먼저 지하 식품부에서 제조해 판 과자류에서 구데기가 나왔다는 기사가 났다.(생략-인용자) 과장된 제스처로 경민이 다희를 향해 샷대질을 해 보였다.(생략-인용자) 싸늘하게 경민은 웃었다. 어딘가 모르게 음모의 냄새를 냈다(생략-인용자). 어쩌다 전화가 걸려오면 다희를 침실로 몰아넣고 도어를 닫는 일도 그 무렵 생긴 버릇이었다.(생략-인용자) 다희는 조금씩 조금씩 경민의 음모를 깨닫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은밀하게 갈아온 칼날을 이제 그가 서서히 휘두르기 시작했다(생략-인용자)는 것도.(232-234)

인용문처럼 그는 편법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회사를 도산시키려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범했던 과거의 일이 비윤리적인 것이라면, 그 역시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라는 미명 아래, 수직 상승에의 욕망을 실현시

키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비윤리적 방법도 불사하는 것이다.

다희 역시 차밍스쿨의 정선생이 이경민을 조심하라는 말이나, 경민이 결국 다희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말, 현우가 다희의 욕망이 자신을 찌르는 칼날일 수 있다고 했던 말,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쓰는 막내 동생이 채크나이프로 던지면서 언제간은 죽일 것이고 하면서 분수껏 살라고 하는 말을 모두 도외시한다. 그들의 말은 결국 자신의 화려한 욕망과는 다른 비참한 삶에 얽어매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치부한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고생하는 어머니나 동생 을희,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르간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주는 영혼의 배려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멀리서, 기타를 가슴에 껴안고, 빗물을 받으며 걸어오는 영혼을 발견’ (212)하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혜승이의 기미 낀 볼에 그늘이 지나갔다. 그 때야 다희는 혜승이가 전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실내는 화사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웠지만 혜승이의 얼굴엔 뒤랄까. 쏟아지고 공허한 가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다(생략-인용자). 「그이는 아무 데도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해. 학교까지도 그까짓 더 다녀서 뭣하느냐는 거야. 밤늦게 들어와도 계산기하고만 지내.」.....(생략-인용자) 혜승인 씩씩하게 미소지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209-210)

또한 위 인용문에서 다희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지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친구의 삶을 바라본다. 그러나 자신의 삶으로 반추되지 않고, 단지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불행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렇듯 이들이 모든 장애물을 넘고, 자신들의 욕망으로 질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경민은 다희를 순수한 여인이라는 환상이며, 다희에게는 경민이 재벌 2세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순수성이나 풍요로의 지향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과 관계가 된다. 그런 그리움은 일상적인

도시적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희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은 순수함은 가상세계에서나 존재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성에의 환상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순수성에 대한 환상이 일시에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경민은 대양 백화점 경영권을 승계 받게 되었으니, 일단은 욕망을 실현한 듯한 성취감에 취한다. 그러나 그 기쁨도 한순간에 머무르고 만다. 추호의 의심조차 품지 않았던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일시에 잃게 된 것이다.

「.....놈은 또 말하더군. 경민이 넌 나한테만 배반당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넌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 뻔하게 앞을 내다볼 수도 있었던 네 아버지가 이 허깨비 같은 백화점을 내 준 것(생략-인용자)도 그렇고 다른 놈팡이와 몇 달씩 함께 살았으면서도 성처녀처럼 분장하고 네 색시가 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여자에(생략-인용자)도 그렇고.....」(281)

위 인용문에서 경민은 김상길에게서 들은 말을 다희에게 전하고 있다.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할 명목을 찾지 못한 김상길은,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민에게 주위의 인물들-아버지, 다희 등이 모두 경민의 배신자라고 일러준 것이다. 순수하다고 믿었던 다희가 사실은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경민은 절규한다. 그녀의 순수함이 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 넣는다.

다희 역시 이경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자, 그녀 역시 파국으로 치닫게

13) 박범신의 1986년 소설 『풀잎처럼 눕다』(1986, 고려원)는 재벌의 서자 도엽과 순수한 여대생 은지의 사랑 이야기이다. 『풀잎처럼 눕다』와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서자인 도엽과 경민은 적자로 태어나지 못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열등감은 일상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들 서자는 편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현실로부터 탈주하려고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

된다. 그녀의 욕망 실현은 이경민이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녀는 파국을 인정할 수 없어서, 대양백화점의 사장실을 찾아간다. 그러나 더 냉혹하게 자신의 파멸을 확인한다. 이경민의 심복이라고 믿었던 처상무가 음흉스런 표정과 경멸하는 말투로 그녀를 사장실에서 내쫓았던 것이었다. 밖으로 밀려나온 그녀 앞에 '성처녀 같은 희디흰 눈이'(270) 내리고 있었으나, 그 눈은 다희를 성스럽거나, 고귀한 것으로 치장하지 못한다. 눈은 도리어 스스로 성스럽고 고귀하고, '순수하다고 각인한 그녀의 환상에 대한 조롱처럼 내린다. 성스러운 눈이 조롱으로 비쳐지는 까닭은 그 다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 때문이다. 우선은 그녀가 마음을 달래려고 술집에 갔을 때이다. 우연히 만난 정교수가 음흉스런 태도로 가볍게 접근하자, 그녀는 그에게 '어서 꺼져 버' 리라고 외쳐댄다. 그리고 귀가해서이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경민에게 심어주었던 순수성의 환상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경민은 벽시계를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불쌍한 태도는 그녀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숨기고 싶은 사실-그녀가 다른 남자와 몇 달 동안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냉혹하게 말한다. 그리고는 13종류의 옷, 구두, 목걸이를 선물한다.

면도날이 가볍게 저만큼 떨어지더니 그 위로 덜씩 경민이 무너져 앉는 소리(생략-인용자)가 들려 왔다. 그것은 다희에게 그녀가 타고자 했던 욕망의 엘리베이터, 아니 그와 함께 이르고자 원했던 그 모든 꿈이 일시에 곤두박질하여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생략-인용자)로 들렸다.(282)

위 인용문은 13번째로 옷과 목걸이, 구두를 입고 거실을 견게 한 후, 그것을 면도날로 찢고 나서, 경민이 쓰러지는 장면이다. 경민의 쓰러짐은 단순한 쓰러짐이 아니라, 그것은 경민의 환상과 욕망이 깨어졌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그것은 다희의 환상과 욕망이 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다희는 자신과 동거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보장했던 경민이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다가 죽지만, 시신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또한번 좌절한다. 경민의 시신은 재빠르면서도 극비리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마치 경민이의 야욕과 질주가 이 세상에 있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연기처럼 대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타버린 경민의 시체는 대양재별 비서실에서 극비리에 인수해 갔다. 장례는 쉬쉬하는 가운데 재빨리 치루어졌다.(314)

다희는 경민의 어느 부분도 만나지 못했다. 「보호자가 찾아갔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선 그 한 마디 뿐이었다.(생략-인용자) 너무 철저하게 불타서 어디에도 경민의 차가 지녔던 비정한 흰색은 남아 있지 않았다. 뒤집힌 골조만 시커멓게. 그리고 황량하고 완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경민이와 다희가 지녔던 욕망의 잔해(강조-인용자)였다.(316)

위 인용문에서 다희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잔해에서, 그녀와 경민의 욕망과 환상의 잔해를 발견한다. 경민의 시신조차 보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보호자가 찾아갔’다는 말만 전해 듣는다. 결국 그녀는 경민의 가족, 심지어 몇 달 동안 동거했고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경민에게 있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부로 달리던, 그래서 중심부에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녀는 중심부로부터 한순간에 떨어져 나와 외곽으로 내팽개쳐진 것이다. 아래 인용문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욕망의 재실현에 대해서 자문해 본다. 그 대답은 부정이었다.

진실로 봄이 오리라는 걸 나는 믿고 있을까. 다희는 자문하였다.

천만에, 하고 또 다른 다희가 대답하였다. (319)

경민이 사라지자, 그녀는 삶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현우의 도움으로 겨우 안정을 되찾은 다희는 며칠동안 내리 잠만 잔다.

죽음보다도 깊고 깊은 잠(강조-인용자)이었다. 무엇이 저 애를 저토록 깊이 잠들게 할까.(생략-인용자) 현우는 차츰 알 것 같았다. 모든 욕망의 사슬에서 일시에 놓여난 빈 시간에 그녀가 잠과 만나고 있음을. 잠이야말로 그녀의 휴식이며 또한 그녀의 완벽한 자유(강조-인용자)임을.....(346)

현우 가족의 도움으로 그녀는 열심히 힘들고, 거친 일을 하면서, 애써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고 한다. 그러나 경민의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째가 되는 날, 다시 도시가 부르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도시로 질주하려고 한다.

도시로 가는 기차가 그 곳에서 울고 있었다. 카나리아와 다람쥐가 죽어 넘어지는 도시, 콘크리트 빌딩 사이사이에서 소리 없이 엘리베이터가 수직 이동해 가는 도시, 그리고 영훈과 경민의 희디 흰 뼈들이 바람처럼 외롭게 떠돌 그 불가사의한 도시..... 순간 도시가 햇빛 속의 꽃뱀처럼 다희를 향해 혀를 낼름 빼물었다. 기적소리가 또 들렸다. 다희는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듯하다가 한 차례 부르르 떨고, 짐짓 나이든 여자처럼 땅바닥을 치는 시늬(생략-인용자)를 해보았다. (364)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도시로의 질주가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환상과 욕망의 잔해임을 확인하고 ‘짐짓 나이든 여자처럼’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4. 욕망과 환상의 잔해

1970년대 대중소설이 일상성에 문제를 던지면서, 산업화 과정의 소외된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소설에 있어서 '일상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신들의 삶을 '비일상적인 것'인 삶으로 인식할 때, 왜곡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삶, '의미 있는 일상성'은 획득되는 것이다. 이들 소설에는 그런 왜곡과 자각이 교묘하게 교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소설에는 당대 대중들의 욕망 중 일부였던 근대화에 가장 민감했던 도시, 또는 도시적 경험에의 환상과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본능적 욕망인 성적 욕망에 대한 자유로운 분출, 그러면서도 근대화 이후 교환가치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떤 특이함에 대한 향수 즉 순수성에의 지향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

일반 대중의 심리와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지점들이 대중소설의 통속적 요소라고 본다면, 1970년대 대중소설은 다분히 통속적이다. 이러한 통속성은 일반대중의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상업적 효과를 보려했던 대중매체의 상업적 전략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통속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1970년대 대중소설의 문학적 가치가 반감되지 않으며, 대중의 현실 인식에 있어서의 진지함도 상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중문화의 에토스는 바로 애매하지 않은 리얼리즘 및 직선적인 서술, 비유와 장식성, 그리고 도덕적 변화와 결부되어 있는 정서적 합일에 근거를 두고 있'¹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대중소설은 대중들의 관심사였던 도시성, 성, 일상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당대 대중들의 삶을 사실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처리한다. 소설을 통해 경험되는 도시성은 당대 대중들의 도시적 경험이 주는 충격과 맞물려 있다. 이때 도시적 경험은 환락이나 성장 신화와 연결된다.

우선 도시적 환락은 성적 자유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별들의 고

14)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향』에서의 관능적인 성적묘사는 1972년도에 발표되어 대중들의 도덕적인 성의식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소설이 발표된 1979년에는 성적 자유에 대한 충격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다희는 성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욕망의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주인공은 성을 보존해야 할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성의식은 『겨울여자』나 『별들의 고향』,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성을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상징화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성장 신화가 사회적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전이되었을 때, 그것은 개인의 수직 상승에의 욕망으로 형상화된다. 『죽음보다 깊은 잠』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소외된 삶을 ‘비일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상류 계층의 ‘일상성’으로 편입할 욕망을 품는다. 그들은 욕망으로 질주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상대가 원하는 가상을 내보이기도 하고, 타인을 제거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질주의 속도만큼 그들의 비도덕적인 방법은 한순간에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들의 욕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 소설에서처럼 욕망과 환상을 품은 타자가 자신이 자율적인 주체라고 믿는데서 타자의 소외 현상은 심화된다. 그리고는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탈중심화된 주체, 즉 타자임을 자각한다. 결국 그들은 도시적 환상은 실재가 될 수 없는 가상임을, 성적 자유도 자율적 행위가 아니라 혼돈이었음을, 그리고 순수성 역시 순수하지 못한 실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일련의 각성 과정은 분명히 당대 타자가 존재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타자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외되어 왔다. 그러므로 타자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불가능을 자각한 타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주변부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법과 그 모순마저 수용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입하여 그것과 동일시되는 방

법이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대중소설은 도시성, 성, 그리고 일상성의 문제를 중심과제로 타자, 특히 여성의 생존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소설은 도시성, 성, 그리고 일상성을 통해, 자율적인 주체 구성과정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왜곡된 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에서의 주인공들의 타자로서의 삶은 결코 한 개인의 위선이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사회에 의해서 왜곡되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다. 이러한 타자의 삶의 왜곡은 산업사회의 모순과 연결되면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에 『죽음보다 깊은 잠』의 주인공들은 그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타자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주하여 상류 계층에 편입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위선이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도 불사한다. 즉 그들은 상류 계층의 삶에 자신의 삶-주변부인의 삶을 잘못 투사함으로써, 환상과 실재사이에 경계를 만든다. 그러나 곧 환상과 실재의 경계마저 사라지고, 환상을 실재로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착각이 수직 욕망에의 질주를 더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실재가 폭로되면서, 주인공들은 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서 이 소설은 산업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나 여성의 삶의 문제로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인공의 좌절이 개인의 위선과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과 대비되는 삶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동생 율희나 현우, 그리고 현우네 가족들은 비록 주변부인이나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구성해 간다. 분명 이들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지배 이데올로기와 다른 목소리를 말할 수 있을 때, 자신들의 삶이 '비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의미 있는 일상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건강한 삶과 대비되

는 주인공들의 욕망과 환상의 비도덕성과 이기심이다. 그렇다고 이 소설은 주인공들이 결말에서 보여주는 욕망과 환상의 잔해를 두고, 도덕적인 잣대를 휘두르지 않는다. 즉 이 소설은 주인공들의 욕망과 환상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로 비평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환기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런 욕망과 환상으로 질주하기 위해 주인공들이 얼마큼 도시적 환상에 빠지는지, 성적 자유를 만끽하는지, 수직 상승에의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참하게 좌절하는지에 주목할 뿐이다. 요컨대 이 소설은 주인공의 도덕성이나 이기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듯하다가, 다시 도시적 경험과 도시적 환상에 푹 빠지게 한다. 이러한 애매한 자세는 사회 전체를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나 사회의 미래를 반영할 유토피아를 선취하거나 잠재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타자, 특히 여성의 삶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적으로는 당대의 사실주의적 묘사, 그리고 도덕적 경험 및 일탈 등 다양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사회의 소비 상품의 한 유형적 특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필자 : 연세대 강사

〈참고 문헌〉

-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강현두 역, 「대중문화의 이론」, 나남 출판사, 1991.
- 강현두 외,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 출판부, 1988.
- 고미숙, 「대중문화론의 위상과 '전통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학동네』, 1996.
여름.
- 김 현, 「초월과 고문-한 소설가의 세계 인식에 대하여」, 『문학사상』, 1973, 4.
-----, 「70년대 문학과 상업주의」, 『김현전집』 14, 문학과 지성사, 1994
-----, 「문학은 소비 상품일 수 없다」, 위의 책.
-----, 「보기흉한 제스처」, 『우리시대의 문학』, 위의 책.
-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 루이 알튀세르 저/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1996.
- 바흐진 저/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 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 박범신, 『죽음보다 깊은 잠』, 문학 예술사, 1979.
-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출판사, 1995.
-----,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출판사, 1995.
- 발터 벤야민 저/ 이태동 역, 『문예비평과 이론』, 문예출판사, 1997.
-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이호철, 「순수소설과 통속소설」, 『문예중앙』, 1994, 여름
- 임성래 외,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1999.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 허버트 J 갠스 저/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나남, 1998.

Abstract

Desire and Illusion dancing in the growth myth
A study on Park Bum shin's 『Deeper sleep than death』

KIM, HYUN-JU

This thesis aims at studying an aspect of the popular-novel in 1970's through Park Bum shin's 『Deeper sleep than death』. Generally, the popular-novel in 1970's treat of the other's survival manner focusing on urbanity, sexuality and everyday life. Through these factors, that novels show us not constructing process of self-controlled subjectivity but distorted appearance of the other by the ruling ideology. Although the characters 'living as the other in the 『Home of Stars』 or 『A winter Woman』 are not caused by an individual's hypocrisy or fault, their living are distorted and alienated by society. In connection with industrial society, this distorted living as the other presents a serious question about living matter of the alienated class in the industrial society. But the characters of 『Deeper sleep than death』 are contrast with others. In this novel, they are aware of the living as the other and willingly to take hypocrisy or immoral acts in order to escape from it and belong to high class. Namely, due to projecting their lower class living on the high class living wrongly, they get boundary from illusion between real existence. Finally it disappear at once, they are regarded Illusion as real existence. This misunderstanding make a dash to a desire for perpendicular rise. However real existence is discovered by others, the characters are alienated from the society thoroughly.

This novel does not make approach to living matter of alienated class in the industrial society but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frustration of character is caused by an individual's hypocrisy or fault. This novel pay attention to immorality and selfish mind by the character's desire and illusion contrasting with sound living. For all that, this novel doesn't give the character's selfish mind a scolding with moral standards. It pays attention only to how they indulge in urban illusion, enjoy sexual liberty fully, make an efforts for the desire for perpendicular rise, are frustrated miserably. To sum up, this novel looks like proposing questions about character's morality and selfish mind at first, but makes us falling into urban experience and illusion in the end. This dubious attitude originate in that they don't have a power grasping the situation of entire society and utopia taking first future. In this point, this novel presumed a type of consumer goods in the industrial society supplying various objects of interest as well as moral experience and deviant behavior.